

마스크 속 피부 트러블 잠재우는 '더마' 제품 뜬다

더마, 과학적으로 피부 건강 접근
더마 코스메틱 시장 규모 1조 예상
제약사, 주력성분 활용... 접근 용이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안전감증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와 그 제품이 부상하고 있다.

17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약 5000억원 규모였던 더마 코스메틱 시장이 올해는 1조 원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건강과 면역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안전성을 강조한 제품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더마 코스메틱은 의약품 성분을 원료로 해서 만든 화장품을 말한다. 더마 코스메틱 시장은 과학적으로 피부 건강에 접근하는 화장품 시장을 일컫는다. 그만큼 제약사들의 경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력 성분을 활용할 수 있어

코스메틱 분야에 '더마' 관련해 접근하기 쉬운 편이다.

종근당 계열사 종근당건강에서는 기존의 '뿔뿔'이라는 자사의 베스트셀러 유산균 제품에서 따와 '닥터 락토'라는 더마 화장품을 지난해 10월 최초로 출시했다. 지난 6월에는 닥터락토의 신제품 'SOS 카밍 크림'을 16일 출시했으며, "진정 케어 라인의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해 소비자에게 다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국제약은 마데카솔이라는 연구 치료제 성분을 이용해 만든 더마 화장품 브랜드가 매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생활뷰티기업 LG생활건강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는 현재 케어존, 더마리프트, CNP, CNP Rx, 닥터벨머 등이 있다. LG생활건강은 더마코스메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던 1997년부터 피부 고민에 따른

처방을 제안하는 브랜드 '케어존'을 출시했고, 이후 특허 성분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더마리프트', 피부 전문가에 따른 안심 처방을 사용하는 저자극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닥터벨머' 등을 추가로 론칭하며 포트폴리오를 확대한 바 있다.



LG생활건강 CNP 프로폴리스 에너지앰플(왼쪽)과 피지오겔 페이스크림.

이러 매출 1000억대 브랜드로 성장한 'CNP차앤박화장품(CNP)'을 2014년에 인수하면서 H&B스토어와 온라인몰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던 더마코스메틱 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했다.

이 CNP는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베트남, 미국, 캐나다 등 9개 국가에 진출한 상태로, 중국에서는 티몰에 입점해 판매 중이다. 최근에는 유럽 더마화장품 대표 브랜드 피지오겔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 인수 등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앞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기존에 피지오겔이 진출하지 않은 국가에서 당사의 현지법인을 활용한 사업

확장을 통해 피지오겔을 글로벌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대표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모레퍼시픽 또한 그룹의 스킨케어 연구소를 통해 일리온, 에스트라 등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에스트라는 계열사 브랜드이고 일리온은 현재 아모레퍼시픽 안에 데일리뷰티에 속해있다.

아모레 측은 "더마코스메틱 쪽은 최근 성장세가 높기도 하고 자체 연구소에서 개발한 특허성분들이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부 브랜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IBK 투자증권의 아모레퍼시픽 연간전망 리포트를 보면, 일리온이 속해있는 데일리뷰티 부문의 4분기 영업이익은 대략 8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품 및 해외 부문의 적자지속 예측에 비하면 더마 코스메틱 부문이 좋은 성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SK플라즈마, 국내기업 최초 나토 의약품 수출 아이엔테라퓨틱스, 난청치료제 개발 나선다

혈액제제 알부민 최종공급자로 선정
아프가니스탄 군·경찰에 의약품 제공
혈액제제 우수성·글로벌 경쟁력 입증

SK플라즈마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혈액제제의약품을 공수했다.

SK플라즈마는 2020년 NATO의 혈액제제 알부민 최종공급자로 선정되어 첫 수출에 올랐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제약기업이 NATO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건, SK플라즈마가 처음이다.

SK플라즈마는 지난 6월 NATO 조달청의 '아프간 군 신약기금(ANATF) 의약품 조달사업'에서 글로벌 혈액유래의약품 기업들과의 경쟁을 뚫고 최종 공급자로 선정되었다.

SK알부민의 최종 도착지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이다. SK알부민은 오랜 내전으로 절대적인 필수약품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군과 경찰에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SK플라즈마의 알부민은 상실(화상, 신중후군 등) 및 알부민 합성저하(간경변증 등)에 의한 저알부민혈증, 출혈성속(shock) 등의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혈액제제이다. SK플라즈마는 지난 1984년부터 알부민을 생산하여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다.

SK플라즈마 김윤호 대표는 "코로나 19 기간 동안 계약에서 실제 수출까지 이뤄낸 해외 사업의 큰 성과"라며 "이번 공급을 통해 SK플라즈마 혈액제제의 우수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만

큼, 향후 글로벌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플라즈마는 앞으로도 NATO 외에도 국제기구 입찰에 품목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UN 산하기관의 국제조달에도 참여하여 혈액제제 공급을 통한 국제사회 보건의료증진에도 힘을 보탬 계획이다.

SK플라즈마는 지난 2015년 SK케미칼에서 분사한 혈액제제 전문 제약회사로 지난해 9월 브라질 국가 입찰에서 면역 글로불린 '리브감마-에스엔주 (I VIG-SN)'의 최종 공급자로 선정되는 등 본격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후보물질 도출 가속

아이엔테라퓨틱스가 인공지능(AI) 신약개발 전문기업 디어젠과 손잡고 난청치료제 개발에 도전한다.

아이엔테라퓨틱스는 디어젠의 AI 플랫폼을 활용해 난청치료제 신약물질 발굴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이엔테라퓨틱스는 대응계약에서 분사된 신약개발 전문 자회사다.

아이엔테라퓨틱스와 디어젠은 난청치료제 분야에서 새로운 구조를 가진 약물을 발굴하고 후보물질 도출을 가속시키기 위해 지난 22일 공동연구계약을 맺은 바 있다.

디어젠이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을 활용해 선도물질 최적화 구조를 제안하면 아이엔테라퓨틱스는 이를 합성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디어젠은 AI 신약개발 전문기업으로, 유전자 데이터로 질병타겟 및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화합물과 단백질의 결합을 예측해 약물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등의 AI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아이엔테라퓨틱스는 자사의 이온 채널 플랫폼 기술에 디어젠의 AI플랫폼을 접목시켜 신약후보물질 도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신약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MZ세대 저격... 카리플X이마트 카트 출시

이마트·넥슨 공동 프로모션
내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진행

이마트가 넥슨의 모바일 레이싱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이하 카리플)'와 손잡고 MZ세대 유치에 나선다.

이마트는 주 이용객이 10~30대인 카리플과의 시너지를 통해 젊은 고객을 유치하는 한편,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넥슨과 공동 프로모션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정식 출시해 서비스에 돌입한 카리플은 글로벌 누적 이용자 수 19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인기 모바일 게임으로, 게임 이용자의 대부분이 30대 이하로 구성되었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1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카리플과의 온·



오프라인 공동 제휴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원은미 기자

유한양행

'콘택골드' 패키지 리뉴얼

유한양행은 초기감기약으로 오랜 시간 사랑 받아온 '콘택'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다시 다가가기 위해 '콘택골드(사진)' 제품 패키지를 리뉴얼했다고 17일 밝혔다.

새롭게 변경된 '콘택골드' 패키지는 브랜드 정체성과 제품명을 강조한 금색을 사용하였다. 또한 제품 패키지 하단에 알약 색상과 동일한 빨간색상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콘택' 패키지의 특징이었던 알약의 시계화를 다시 표현하여 콘택 브랜드의 연속성도 강조했다.

'콘택골드'는 등 초기감기, 비염, 부비동염에 빠르고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초기 코감기약이다.

/이세경 기자

빈폴골프, 순록 등 멸종위기동물 컬렉션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빈폴골프가 멸종 위기의 동물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취지에서 멸종 위기 동물 컬렉션 상품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지난 9월 협력사와 함께 인권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공동 원칙을 공유하고 실천하기로 선언한 바 있으며, 빈폴을 중심으로 재생 소재 및 충전재 사용, 동물복지 시스템 준수 다운(RDS) 사용, 환경오염 유발 물질 원단 사용 축소 등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빈폴골프는 환경문제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개체 수가 감소해 보호가 필요한 멸종 위기 종 그린란드 순록, 흰점박이 물범, 북극곰 등

을 디자인한 상품을 내놨다.

관련 상품은 북극곰과 그린란드 순록, 흰점박이 물범, 북극곰의 이미지를 인타사(부분적으로 다른 색으로 짠 무늬를 서로 끼워 넣은 것 같은 모양) 방식으로 편직한 스웨터, 그린란드 순록과 흰점박이 물범 이미지를 활용한 양말 등으로 구성됐다.

빈폴골프의 멸종 위기 동물 컬렉션은 방풍 안감을 사용해 보온성을 높였으며 기능성까지 갖춰 필드를 넘어 일상복으로도 안성맞춤이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빈폴골프 멸종위기 동물 컬렉션